

##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주제 발표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0-05-12 15:30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는 오는 8월29일부터 11월21일까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제12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의 한국관 전시 주제가 '압축 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역사도시 서울의 변화'(RE-PLACE-ING, Documentary of Changing Metropolis Seoul)로 정해졌다고 12일 밝혔다.

권문성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가 한국관 커미셔너를 맡았으며 신승수 디지오즈건축 대표와 이상구 경기대 건축과 교수, 이충기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조정구 구가도시건축 대표, 하태석 아이아크건축 대표가 한국관 전시에 참여한다.

참여작가들은 서울의 건축물, 특히 주거공간이 압축성장 과정에서 사라지고 다시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서울의 미래를 가능하는 전시를 열 계획이다.

베네치아 자르디니 공원 내에 있는 한국관은 또 건물의 벽이 대부분 유리로 돼 있는 점을 이용해 한국의 전통 정자를 연상시키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은 미술전이 없는 해에 열리는 전시로, 올해는 일본의 카즈요 세지마가 총감독을 맡았다.

zitrone@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